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내 롤러스케이트장 개장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청소년과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수련관 유휴부지 내에 청소년 야외 스포츠 활동공간으로 마련한 롤러스케이트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지난해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00㎡ 전용트랙과 관리실 및 청소년 여가 활동실 등 전용공간을 조성해 80~90년대 청소년들에게 성황했던 롤러장 재현함으로서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체육활동을, 부모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제공해 가족단위 및 학교 연계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과 청소년 밴드 동아리 '라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롤러타기 체험과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김밥, 팝콘, 아이스티 등 먹거리 무료 체험과 VR 체험실, 코인노래방 등에서 다양한 실내놀이를 함께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조재영 교수,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 위촉

전북대학교 조재영 교수(생물환경화학과)가 농림식품 R&D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6년까지 2년이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수립, R&D 사업평가, 성과관리 및 예산투자 등을 심의 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다.

이에 조재영 교수가 속한 농업환경·정책분과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조재영 교수는 "탄소중립 기반의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저감 농업기술 실용화 확대, 온실가스 흡수기능 강화, 탄소중립기술의 현장 실증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정읍 보건소, 초등학교 대상 '튼튼이 스쿨' 운영

정읍시 보건소는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2일부터 11월까지 16개 초등학교 9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튼튼이(齒) 스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치아우식증(충치)이 많이 발생하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구강 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구강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치과공중보건의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팀은 구강보건 이동버스를 활용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불소를 도포하고,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아 모형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지도한다.

또 1~2학년을 대상으로 평생 사용하게 될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인월면 지사협, 달오름 이불 빨래터 운영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달오름 이불 빨래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무거운 이불 빨래를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4~6월은 월 2회, 9~12월은 월 1회 8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달오름마을 클린라이프공방에서 세탁과 건조 장소와 인력을 제공하고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들이 이불수거 및 배달을,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달오름마을 황태상 위원장은 "깨끗하게 세탁된 이불을 받고 환하게 웃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민 행복한 삶·가치실현 공동 노력"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농협 협약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1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향사랑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진행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보 교류 △양 기관 특성에 맞는 사업의 목적 달성 지원 △공동협력 사업 발굴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여성가족재단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여성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전북농협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과 각종 행사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향사랑 가치 확산을 위한 협업사업과 농협중앙회전북본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전북농협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bw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남원시,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 성료

남원 요천변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봄꽃이 만발한 요천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진행된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가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과 함께, 봄꽃이 만발한 요천변을 산책하며 음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추억의 음악방" 섹션에서는 고전 명곡들이 연주되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나도 가수다"라는 시민과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 이벤트는 참여 열기가 뜨거웠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노래 실력을 뽐내며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고, 이 외에도 포토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포토 카드로 만들어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달빛 DJ파티'는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어 요천변을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가득 채웠으며, 참가자들은 DJ가 선사하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봄밤의 정취를 만끽, 요천 음악회는 남원의 봄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원의 아름다운 봄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춘향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협,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 사업 추진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매월 2회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17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밑반찬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국, 반찬 3종으로 구성된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살뜰히 보살핌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덕교 위원장은 "앞으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온정 넘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농협, 신규조합원 120명 교육 실시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에서는 지난달 29일 부안농협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원칙과 조합원의 자세'에 대해 신규조합원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 임용찬 교수가 첫 시간에 협동조합 이념에 대한 교육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농협 및 농협사업 이해로 조합과의 관계를 밀착화시키고 사업 참여도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과 둘째 시간에는 조합원의 주인정신이란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고, 실천항목에는 평소 농협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용에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 의무의 준수라는 설명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조합원의 참여 없이는 농협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과 내 조합의식의 함양으로 잘사는 부안농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송규 키움팜 원장, 전북대에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인 키움팜 동물병원 김송규 원장(88학번)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3월 2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송규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송규 원장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전북대학교가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탑100 대학으로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수의과대학 후배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1천만 원의 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한편 김송규 원장의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청 역도팀,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 3관왕

진안군청 역도팀 소속 김정민 선수(남자 81kg)가 지난달 26일부터 4월 2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리고 있는 제72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81kg급 정상에 올랐다.

떠오르는 유망주인 김정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인상(120kg) 1위, 용상 (185kg) 1위, 합계(305kg)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김정민 선수는 2005년생으로 올해 초 경기도 안산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진안군청 역도팀에 입단한 선수로 고교 시절 각종 전국대회에 입상하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진안군청 역도부 입단 후 첫 출전한 2024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제72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진안군청 역도팀은 2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 3월에 고성군에서 열린 2024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이번에 열린 제72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진안 역도의 힘을 증명했다.

역도팀은 평소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및 전북인삼농협 후원으로 진안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과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진안홍삼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올 초부터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출전 대회마다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역도팀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채희, 장학생 선정

남원시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꿈키움 장학금'에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 안채희 청소년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꿈키움 장학금을 받게된 안채희 청소년은 장래 간호사가 되어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간호대학교에 입학했다.

소감으로 안채희 청소년은 "대학교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었는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겠다"고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각종 상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흥덕농협 2024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흥덕농협 (조합장 백영종)은 최근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흥덕농협은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조합원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18명의 지역인재 장학생들에게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은 "농업인 조합원의 교육비 절감과 지역 인재육성은 농협의 역할이며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씸히 노력하는 조합원자녀 지역인재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흥덕농협은 조합원 자녀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농업인 조합원의 교육비 절감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장학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